

김석동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인물 탐구 김알렉산드라

한인 최초 볼셰비키 당원 ... 러시아서 항일투쟁하다 순국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나는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달성하는 경우에 만 조선의 독립도, 한인의 자유도 되찾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김알렉산드라의 법정 진술 중)

김알렉산드라는 1885년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의 한인 마을에서 태어났다. 러시아 이름은 '김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스타нке비치'이다. 부친 김두서는 함경북도 경흥의 농민 출신으로 1869년 대흥년 때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연해주 연후(현 크라스키노)로 이주해 개간 사업을 하다 우수리스크의 수분하(라즈들로나강) 유역 추풍 영안영으로 이사했다. 발해 유적지가 다수 발굴된 우수리스크는 고대부터 한민족이 살아온 땅으로 당시 이주 한인인 1만 명에 달했다 한다.

하바롭스크 당 비서로... 당시 한인 중 최고위

1896년 부친 김두서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건설 현장의 통역사로 징집되면서 하얼빈으로 함께 이주했고 소학교와 건설 현장 임시 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웠다. 부친은 러시아어, 중국어에 능통했고 연해주에서 대거 동원된 한인 노동자와 중국인 편에서 그들의 보호에 온 힘을 쏟았다. 김알렉산드라도 부친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착취 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1902년 부친이 별세하자 부친의 친구이자 동정 철도 아세히 역장인 폴란트게 러시아인 스타нке비치의 집안에 잠시 위탁했고 후에 그의 아들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으나 헤어졌다. 이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여성사범학교에 입학해 역사와 사상을 공부하고 진보적인 친구들과 만나면서 반제국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눈을 뜨고 심취하게 된다. 이즈음 러시아에서는 마르크스 사회주의가 퍼져 나가면서 동맹 파업 등 조직적인 반정부 활동이 일어났고 그는 사범학교 졸업 후 고향 근처의 학교 교사로 일하다 시작하고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된다.

1905년경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벌어진 노동운동에 가담했다가 러시아 헌병의 추적을 피해 중국 무단장시 동남의 한인촌으로 피신했다가 그곳에서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게 된다. 이후 그는 아들을 여동생에게 맡기고 러시아와 중국을 오가며 러시아 혁명가들과 함께 활동했다. 1910년을 전후해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등지에서 포고령을 어기고 노동운동을 계속하다 러시아 헌병대에 쫓기게 되자 연해주 신한촌의 러시아 정교회 사택에 은신하게 됐고 그곳에서 러시아 신부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된다.

1914년 러시아의 무기와 군수품 생산 기지이자 목재 공급지인 우랄지방의 중심 도시 페름 공작지대에서 한인·중국인 노동자를 대거 모집했고 한인도 수 천 명이 이주했다. 그해 7월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일본과 동맹국이 된 러시아 정부는 연해주의 한인들을 핍박했고 페름의 체첸소와 별목장에 동원된 조선인들도 임금 체불과 비인간적 처우로 고통받았다. 신한촌 한인회가 나서서 페름의 동포들을 돕기 위해 김알렉산드라를 현지 통역사로 파견한다. 그는 부친의 가르침에 따라 착취당하는 한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신실한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해냈다. 러시아 사회민주당(볼셰비키) 페름위원회를 찾아가 페름지역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맹렬히 활동했고 공장 당국으로부터의 암살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곳곳이 노동자 편에 서서 싸웠고 지도자 위치에 서게 되었다.

러시아 철도건설 통역 아버지 영향 착취당하는 한인들 대변 노동운동 러·중 오가며 독립운동가들 교류 우랄 노동자연맹 결성 앞장서기도 러 내전서 일본군·왕당파와 싸워 퇴각 중 체포, 조선독립 외치며 최후



한인 최초 볼셰비키 당원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 김알렉산드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17년 그는 조선인 최초로 레닌이 이끄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볼셰비키) 당원이 됐고 우랄 노동자연맹 결성을 주도하게 된다. 당시 페름 공장 노동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받아내는 소송을 주도하던 중 러시아 혁명으로 볼셰비키 정권이 들어선 후

극적으로 재판에 승소하여 명성을 얻게 된다. 7월 하바롭스크로 파견된 그는 한인사회 내에서 조직 확산을 담당하고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지역 대표자 회의에도 참석하게 된다. 1918년 그는 하바롭스크 시 당 비서와 극동인민위원회 외교인민위원(외부

위원장)로 선출됐는데 당시까지 재외한인 중 가장 고위직에 오른 사람이었다. 당시 러시아 감옥에 수감중이던 이동휘의 구명 활동에 적극 나서 석방 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도 한 바 있다.

그해 3월 하바롭스크에서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에 대응하고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인 정치망명자대회가 열렸다. 이동휘·양기탁 등 민족적 사회주의자, 이동휘·류동열 등 민족적 사회주의자, 김알렉산드라 등 볼셰비키(‘다수파’라는 뜻으로 1903년 레닌을 지지한 급진파 볼셰비키와 대립했다)들이 참석했다. 민족주의 진영은 러시아의 지원은 필요하지만 볼셰비즘까지 수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우수리스크로 돌아갔다. 그러나 볼셰비키와 조선 민족 해방에 도움이 된다면 볼셰비즘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 민족적 사회주의자들은 아시아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출범 시킨다. 김알렉산드라는 위원장으로 천거됐으나 이미 러시아사회민주당원이라 하여 사양했고 위원장에 이동휘, 군사부장 류동열, 선전부장 김립이 선출됐다. 이동휘는 인사말에서 “알렉산드라 동지를 우리의 지도자로 기억하고 존경할 것이며 당의 사

소한 문제까지 상론할 것”이라고 했다. 반일본 반제국주의 사회주의 노선을 강령으로 조선 독립을 추구한 한인사회당은 일본군과 러시아 반혁명세력인 백위군(볼셰비키가 노동자들로 편성한 적위군에 대항해 왕당파가 정권을 되찾기 위해 조직한 반혁명군)과 맞서기 위해 한인 무장부대(한인사회당 적위군)를 조직했다. 그해 4월 러시아 백위군과 연대한 일본은 군함 등 2만8000여 명의 병력을 블라디보스토크에 파견했고 볼셰비키 혁명 세력은 위기를 맞았다. 한인사회당은 대책을 숙고했고 이동휘 등은 러시아 내전에 참여하지 말 것을 주장했으나 김알렉산드라와 류동열은 일본군과 백위군에 대항해 싸울 것을 주장했다. 일본군과 러시아 백위군은 6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작해 하바롭스크로 진격했고 우수리전투에 참전한 100여 명의 한인 무장부대는 절반 이상 전사했다.

정부, 2009년 건국훈장에국장 추서

전황이 불리해지자 러시아 극동인민위원회는 하바롭스크를 떠나 아무르주로 퇴각하기로 했고 한인사회당도 합류하게 된다. 일본군과 러시아 백위군은 철도를 비롯한 시베리아 일대를 장악하고 하바롭스크까지 함락하는 상황이 됐다. 이동휘는 우수리강변의 한인 농가로 피신했고 김알렉산드라와 김립, 류동열 등 당 지도부 인사 13명은 아무르강을 오가던 기선 중 마지막 탈출선 바론 코르프호에 올랐으나 선장의 배신으로 선박이 나포되고 일행은 러시아 백위군에 체포되어 하바롭스크로 압송됐다. 모진 고문 끝에 백위군 측 즉결재판을 받은 김알렉산드라 등 18명에게는 사형이 선고됐고 9월 16일 아무르강변 우초스 절벽에서 총살형이 집행됐다.

김알렉산드라는 눈을 가리는 두건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열세 걸음을 걸어갔고 직후에 의연하게 순국했다. 서른넷의 한창 젊은 나이였다. 그는 “조선의 후진들이, 내가 걸은 13보는 조선 13도이다. 소비에트 강토는 소비에트 인민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고 조선 강토는 조선 인민이 주인이 될 것이다. 조선독립만세”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최후를 맞았다 한다. 최후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그의 시신은 아무르강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비극적인 죽을 이후 3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아무도 낚시를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김알렉산드라는 한인 이주인 2세로 러시아에서 태어나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러시아에서 항일운동을 했고 러시아에서 일본군에 체포되어 죽음을 맞았다.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여 볼셰비키 혁명가가 되었기에 독립운동가로서의 역할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시대에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항일운동에 나섰고 사회주의 이념은 그에게 조선의 해방과 독립의 수단이었다.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계봉우는 그가 순국한 지 2년이 지난 1920년 4월, 3회에 걸쳐 김알렉산드라 소전(小傳)을 독립신문에 연재하면서 그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투사로 그렸다. 임정수립 90주년을 맞은 2009년 대한민국 정부는 김알렉산드라에게 건국훈장에국장을 추서했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러시아 하바롭스크 김알렉산드라의 집무실이 있던 건물 외벽에 걸린 팻말. “김알렉산드라가 이곳에서 일했으며, 1918년 영웅적으로 죽었다”고 적혀 있다. [연합뉴스]

김석동 2007~2008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거쳐, 2011~2013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 현재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로 있다. 지은 책으로는 ‘김석동의 한민족 DNA를 찾아서’가 있으며, 오랜 경제전문가로서 직장인들의 딱딱한 주머니 사정을 감안해 가성비 좋은 서울의 노포 맛집을 소개한 ‘한 끼 식사 행복’이 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since 1982